

불교문화로 외국인 포교 '효과'



신행현장

통도사 부산포교원 국제포교부

노란 머리, 푸른 눈동자, 법당 천장에 닿을 듯한 큰 키의 외국인들이 통도사부산포교원 법당에 들어와 합장으로 예를 갖추었다. 이같은 풍경은 통도사 부산포교원(원장 심산)에서는 이제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매월 셋째주 일요일마다 (사)한나레문화재단 소속의 국제포교부(회장 김건웅)가 외국인들을 위해 열고 있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기행' 때면 볼 수 있는 풍경이기 때문이다.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등을 만들면 우리들 마음이 환하게 밝혀져요. 이 등은 팔각등이라고 하는데..."

국제포교부의 고문으로 활동하는 인도인 로이교수가 그렇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스테파니(35·영어강사)도 그렇게 포교원과 인연을 맺게된 외국인중 한사람이다. 어머니 49재를 절에서 모셨을 정도의 불교에 흠뻑 빠진 스테파니는 "한국문화와 불교는 알면 알수록 깊고 멋져서 이제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중학생들을 데리고 함께 온다"며 자랑한다. 스테파니는 이제 거꾸



◇통도사 부산포교원 국제포교부 회원들이 외국인들에게 연등 만드는 법을 지도하고 있다.

국제포교부 회원들은 지난 초파일 때 외국인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안내자 역할을 특별히 했다.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신나 하는 연등만들기에서 영어로 연등의 의미부터 만드는 방법까지 차근 차근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 큰 인기를 얻었다.

매월 문화체험 행사

녹차·연등 만들고

사물놀이로 흥돋우고

44회동안 6백명 동참

"외국인에 대한 포교는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97년 창립된 국제포교부는 드자기 만들기, 녹차 만들기, 한지공예, 사물놀이, 전통연 만들기 등 우리문화를 통해 불교를 전하는 문화포교의 중심이 되고 있다.

로 한국문화와 불교를 한국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셈이다.

15명의 많지 않은 회원들이 한결 같은 신심으로 일구어온 외국인 포교는 이렇게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제포교부로부터 참선을 알게된 외국인들이 자체적으로 모여 만든 참선모임도 생겼다. 조만간 외국인 자체 모임도 만들어질 계획이라 문화포교를 통한 외국인 포교의 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건웅 회장은 "외국인 포교는 장기적인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중앙적인 문화는 불교와 상통하고 있어 문화를 통한 포교가 아주 효과적"이라고 문화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국제 포교 자료가 전무해 어려움을 겪었던 회원들은 그동안 총액 1080배를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발심수행장, 천수경, 금강경 등을 영어로 배우며 신심을 다지는 한편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 왔다. 부산불교연합회 펄플렛 영어제작, 동남아 아웃 지원 등 포교와 보기도 병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서예수63보살의 꾸준한 포교 활동과 이은정(35)회원이 담당하고 있는 홈페이지(www.busanbuddhism.org) 자료 정리, 최갑차, 이영숙 회원이 맡아 매주 일

요일마다 열고 있는 초·중고생들을 위한 영어회화 강좌 등 회원 모두 일인 다역을 해야 될 정도로 활동이 많다.

지난해는 국제포교의 성과를 인정받아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포교원력상을 받았고 4월 1일에는 김건웅 회장이 조계종포교원 국제포교사회 정기연수회에 발제자로 초청받아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포교'라는 주제로 국제포교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기도 했다.

오는 20일 경남 하동 악양매암 차문화 박물관에서 열리게 될 제45차 차만들기 행사를 앞두고 준비에 한창인 국제포교부 회원들의 포교원력은 불교적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눈부른 외국인들의 마음에서 알차게 자라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생활속의 불교

부린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누구라도 콩을 수확하려 하면서 팥씨를 뿌리는 것은 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서도 부린 그대로 스스로 거두고, 행한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율칙이다. 이 인과의 법칙엔 탈탈만큼의 오차도 없다. 고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해서 행한 그대로, 부린 그대로 우리 앞에 결과로 다가온다. 기쁨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열매가 오고 괴로움의 씨앗을 뿌리면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이다. 내가 행하고 내가 먹는 도리이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다 아니다. 나는 분명히 성취와 기쁨을 원하고 또 그렇게 행동했지만 결과는 좌절과 슬픔으로 귀착되는 경

우가 허다하다. 그렇다면 인과에도 예외가 있던 말인가?

내 손길이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 달라'던 마인더스 왕은 그 소원이 성취됨으로 해서 굶어 죽고 말았다. 그러나 마인더스의 경우에도 법칙은 엄연히 살아 있었다. '손길 닿는 것마다...' 하고 원한 것이 씨앗이고 '황금으로 변한 것'이 결과라던 다시 황금이 새로운 씨앗이 되고 죽음이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인과의 2차 방정식이라 할 수 있다. 삶은 상대적이다. 혼자서 뿌리고 혼자서 거두는 경우란 거의 없다. 따라서 인과의 법칙은 엄하고 설킨 고차원의 방정식과 같다. 혹은 총총히 짜여진 그물 같기도 하

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씨앗과 결과 간의 상관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법칙에 예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지한 것이다.

내가 한 끼의 식사를 위해, 혹은 취미라는 명목으로 살생을 한다고 하자. 나는 분명 배고픔을 해결했고 여가를 즐겼으니 행한 대로 원한 대로 뿌리고 거두었다. 그러나 인과의 고리는 거기서 종결된 게 아니다. 나의 즐거움이 상대의 아픔·괴로움으로 이어졌으니 그 아픔과 괴로움의 과보도 내가 받아야만 한다. 이것이 예외 없는 인과의 법칙이다.

진정 자신의 삶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원하거든 불법을 실천하라. 삶은 그대가 원하는 대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스승은 제2의 부모 공경하고 찬탄합시다"



해주 동국대 교수

올해도 여느 때처럼 스승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교단에 몸담았던 교원들이 스승의 자리를 포기하고 무더기로 교단을 떠났습니다. 그 원인의 하나로서 바람직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 지도의 난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등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중도에서 학교를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 크게 우려할 만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은 왔지만 즐겁지만은 않은 게 솔직한 심정들입니다.

<육방예경(大方廣經)>에서 "제자가 스승을 삼김에는 마땅히 다섯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공경해 존중함이고, 둘째는 은혜를 생각해 잊지 않음이고, 셋째는 가르침 받은 것을

깨달음으로 이끄시는 부처님 영원한 스승

따름이요, 넷째는 자구 생각해 실증내지 않음이고, 다섯째는 그 덕을 찬탄함이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간절해질 때입니다.

예전처럼 전인교육을 목표로 할 때는 모르지만 오늘날의 교육 풍토 속에서도 과연 스승이 있다고 여기며, 스승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가의 회의가 들때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부제가 시행되고 난 뒤에는 졸업생들이 사은회를 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 때는 사은회 장소가 마지막으로 선생들을 성도하는 자리로 바뀌기도 하여 학생들이 사은회에 참가하기를 부담스러워 한 적도 있었습니니다. 아예 사은회가 열리지 않기도 하는 요즘에 비하면 그 성토장이 오히려 서로 기대하고 아끼는 마음의 발로가 아니었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스승의 날을 맞아 옛 스승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전히 학생들을 아끼고, 스승을 존경하는 사제지간의 훈뜻한 광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교육현

장에 몸담고 있는 선생들에게 있어서 '스승의 날'은 자신의 스승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한 채, 학생들의 방문을 받아 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서 '온갖 만물로 공양한다 스승의 은혜는 못다 갚는다'는 말처럼 스승의 은혜가 깊다고 하겠습니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스승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람직한 스승상은?

잊지 못하는 스승의 모습은 개인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언제나 미소짓는 파스칼이 그리울 수도 있고, 그 때는 아속하고 무서웠지만 지나고 나니 깊은 배려가 있었음을 감사하기도 하는 등, 존경하는 스승상은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가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승은 제 2의 부모일 수도 있고 어쩌면 부모님보다 자신의 인생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온 인류에게 있어서 이 상적인 영원한 스승을 한 분만 들라고 한다면, 불자들은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불자라는 말 자체가 갖는 의미 역시 부처님의 아들 딸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제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불문에 서도 제일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하면서 '부처님을 모든 중생의 어지신 아버지이며 우리들의 스승(三界導師 四生慈父 是我本師)'이라고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들이 미혹과 집착에서 벗어나 고통을 없애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구제자이며 아버지로서 스승이신 것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의 참뜻과 은혜를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겨보게 됩니다.

신행캘린더

5월 17일(목)

■진각종 통리원장. 교육원장이 취임 법회=불교.진각종은 오후 2시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통리원장, 교육원장이 취임법회를 봉행한다.(02)913-0751

5월 18일(금)

■법정사 성지순례=서울 법정사는 19일까지 1박 2일간 설악산 봉정암 적멸보궁 성지순례를 떠난다.(02)971-0303

■한국전통선 조명 학술회의=한국선학회는 19일까지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한국선이란 무엇인가-선리사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02)2260-3135

5월 19일(토)

■철야용맹정진=대구 동화사는 오후 8시부터 20일 새벽 4시까지 철야용맹정진법회를 봉행한다.(053)982-0101

■SBS법우회 성지순례=SBS법우회는 고탕 선운사, 내소사, 월명암을 참배하는 성지순례를 떠난다.(02)369-1391 이태전

■파라미타 오픈세미나=파라미타 청소년협의회는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디지털시대 청소년 문화의 진단과 방향'을 주제로 오픈세미나를 개최한다.(02)723-6165

■어르신 효도잔치=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오전 11시 효경량 경로당에서 어르신 효도잔치를 개최한다.(02)385-1351

5월 20일(일)

■진실 희망 찾기 콘서트=불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원불교 사회개혁교단,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4개 법도 인권위원회는 오후 5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실, 희망 찾기 콘서트-산 자여 말하라'를 개최한다.(02)737-3313

5월 21일(월)

■(가)종교환경단체협의회 출범식=불교환경교육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및 원불교 천지보존회 대표들은 오후 2시 조계사에서 (가칭)종교환경단체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5월 22일(화)

■조계사 신중기도 입제=조계사는 오전 9시 30분 지홍 주지스님의 집전으로 신중기도 입제 법회를 봉행한다.(02)732-2187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본 불국사에 모셔진 부처님 진신 사리는 신라에 불교를 처음으로 전한 아도화왕이 모셔온 사리입니다. 현재 도리사에 모셔져 있는 사리의 분과로서 영롱한 그 빛은 친견하는 이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자아내기에 모자람이 없는 부처님의 오색사리입니다. 또한 스리랑카의 보타레 사원에서 모셔온 사리는 약 1700년전에 아누라다왕조시대부터 모셔던 2과 중 1과를 태원큰스님이 기증받아 모셔오게 되었으며, 다른 한과는 1982년 11월 12일 인도 기원정사에서 상카라스님께서 태원큰스님의 진법의지를 찬탄하시면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중흥을 이루라는 서원과 함께 기증하여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 찬란한 방광을 하시니 어찌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아니라 의심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것은 부처님의 상주하시는 불신의 모습을 친견하는 것과 같으며, 또한 부처님의 한량없는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리와 친견공덕은 몇 겁의 무명속에 헤메이던 우리의 두터운 업장을 소멸하며, 정성으로 기도하면 소원성취를 이룩할 것입니다. 이에 본 사찰에서 봉행되는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에 두루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 일 시 : 2001년 5월 23일(음 윤달 4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분당 수미산 불국사 극락보전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 회 일 시 : 2001년 6월 12일 (음 윤 4월 21일) 오전 10시 30분 회 보살계 수계법사 : 가산지관 큰스님 (전 동국대 총장, 현 조계종 원로의원) 회 보살계 인례법사 : 연봉태현, 가섭, 보광, 덕광 스님 회 장 소 : 분당 수미산 불국사 극락보전 증명 : 가산지관 큰스님 주지 : 연봉태현 스님 법주 : 일각스님 법주 : 원담스님, 성종스님	신사년 윤달 생전예수재 봉행 안내 회 기도입재 : 2001년 5월 23일(음 윤달 4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대법회 봉행 회 기도회향 : 2001년 6월 12일(음 윤달 4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보살계 수계 산림 봉행 회 장 소 : 분당 수미산 불국사 증명 : 가섭스님 진행 : 보광스님, 덕광스님
---	---

세상에서 가장 마음 편한 도량 / 천하제일 지경기도 성취 도량

전화 031) 719-0408~9 팩스 031) 726-0409

대한불교 조계종 수미산 불국사 주지 태현 총무 가섭 두손모음

근본불교 진흥원 **서울불교대학** 대한불교 조계종 **여래선원**
 서울·서초구 서초동 1640-2 ☎ 02)588-8009 • Fax 02)588-8055
 대구·수성구 범어동 292-15 ☎ 053)744-9009

모 제 1기생 집

말이나 글을 믿을 필요가 없다. 와서 직접 체험하라. 붓다의 신자로서 참 가르침만을 고집하는 집. 참 가르침인 원시경전과 위빠싸나 수행의 실천만이 있는 곳 진리는 말이나 글의 저 너머에 있다.
 미얀마 국립 국제 불교대학교, 미얀마 국립 승가대학교의 자매대학.
 마음 길들이고 마음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원전)과 실천(위빠싸나)으로 그대들도 불교명상 지도자가 되어 나누며 정진하라!

※ 각 과정 수료시 소정의 법제 증위를 수여함 ※ 국내외 어디든지 여래선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선전 개원시 직접적(경제적·인적)으로 적극 지원
 ※ 미얀마·국제불교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음. ※ 미얀마·국제승가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음.

- | | |
|---------|--|
| 1) 모집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교사(디플로마) : Dip.(B.D.) : Diploma in Byddha Dharma 교법사(학사 과정) : B.A.(B.D.) : Bachelor of Art in Buddha Dh. 선법사(석사 과정) : M.A.(B.D.) : Master of Art in B. Dharma. 대법사(박사 과정) : Ph.D.(B.D.) : Doctor of Philosophy in B. Dh. |
| 2) 입학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자 전 과정 수료 후 여래선원·지원을 개원하려는 자 각 자원에 자원 출강 할 수 있는 자 · 해외 유학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3) 교육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교기본 수료(포교사 품위) 과정 : 1년 (4주 집중수행 필수) 불교학 학사(교법사 품위) 과정 : 2년 (8주 집중수행 필수) 불교학 석사(선법사 품위) 과정 : 3년 (12주 집중수행 필수) 본대학·미얀마 국제불교대학교 공히 인증 불교학 박사(대법사 품위) 과정 : 4년 (16주 집중수행 필수) 본대학·미얀마 국제불교대학교·국립승가대학교 공히 인증 |
| 4) 수업시간 | 주 3일(월, 화, 수) 주 1회 신년 선행 필히 참석
월요일 10:30 ~ 12:00 화요일 19:30 ~ 21:00 수요일 10:30 ~ 12:00 |
| 5) 입학식 | 2001년 5월 27일(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2,3호선 교대역 1번 출구 전방 150M(렌터나츠점)에서 우측 100M(두란노 고시원 앞)